

POSTECH 노용영 · 한세광 교수, 과학기술훈장 도약장 · 과학기술

신일권 기자 nanaconan@ksmnews.co.kr 입력 | 수정 2024.04.23 16:20



↑ ↑ POSTECH_노용영_교수



↑ ↑ POSTECH_한세광_교수

[경상매일신문=신일권기자]POSTECH(포항공과대학교) 화학공학과 노용영 교수와 신소재공학과 한세광 교수가 22일 개최된 '2024년 과학 · 기술' 시상식에서 과학기술훈장 도약장과 과학기술포장을 각각 수훈했다.

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과학기술·정보통신 진흥과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했으며, 최수훈장 2명, 포장 5명, 대통령표창 6명, 국무총리표창 8명(1개 단체 포함) 등 총 21명이 수상했다.

과학기술훈장 도약장을 수훈한 노용영 교수는 세계 최초로 주석(Sn)을 기반으로 한 금속 할로겐화물 페로브스카이트 p-형 반도체와 고성능 트랜지스터를 개발했다. 이 연구는 2023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전자정보 분야 최우수성과로 선정되며, 노 교수에게 수훈의 영광을 선물했다. 이 분야는 서선정학선정한 반도체 10대 미래소재 난제 기술 중 하나로 노 교수의 뛰어난 업적이 앞으로 더 많은 혁신과 발전을 이끌 것으로 학계는 기대하고 있다.

한세광 교수는 진단과 치료가 동시에 가능한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 콘택트렌즈와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개발해 헬스케어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수훈의 영예를 안았다. 한 교수의 연구는 안(眼) 질환과 당뇨 관련 의료용 센서를 무선 통신기기와 연동해 환자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. 이 연구는 2023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융합 부문 최우수성과로 선정됐다. 또, 지금까지 180여 편의 논문을 국제 학술지에 게재한 한 교수는 2023년 3월 '바이오머티리얼즈(Biomaterials)'의 부편집장으로 선임되기도 했다.

한편, 이외에도 POSTECH 물리학과 신희득 교수와 신소재공학과 이병주 교수가 각각 연구개발 최우수성과 100선 유공 장관 표창과 연구자 공로패를 받았다.